

G 10.1 The noun-modifying from -(으)ㄹ (prospective)



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.

- A: 왜 내일 학교에 갈 시간이 없어요? B: 집에 할 일이 많아서요.
- A: 어제 올림픽 게임 봤어요? B: 아니오, 요즘 바빠서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어요.
- A: 뉴욕에서 친구들을 좀 사귀었어요? B: 아니오, 친구들을 사귄 시간이 없었어요.
- A: 마실 것 좀 줄까요? B: 네, 고마워요.
- A: 어디 가세요? B: 봄에 입을 옷을 좀 사러 백화점에 가요.
- A: 이번 학기에 경제학 안 들으세요? B: 네, 듣는 과목이 많아서 들을 시간이 없어요.
- A: 시험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요? B: 그래요. 이번 주말에는 놀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.

G 10.2 별로 + negative 'not particularly, not really'



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.

- A: 오늘 할 일이 많으세요? B: 아니오, 별로 없어요.
- A: 학교 앞 식당 음식이 어때요? B: 별로예요. 그 식당에 가지 마세요.
- A: 이 옷 비싸요? B: 아니오, 별로 안 비싸요.
- A: 많이 피곤하세요? B: 아니오, 어제 많이 자서 별로 안 피곤해요.
- A: 어제 시험이 어려웠어요? B: 아니오, 별로 안 어려웠어요.
- A: 지난 주말에 많이 놀았어요? B: 아니오, 좀 바빴어요. 그래서 별로 많이 못 놀았어요.

G 10.3 The clausal connective -어서/아서 (sequential)



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.

- (결혼하다) 제 언니는 결혼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.
- (오다) 저는 보통 기숙사에 와서 저녁을 먹습니다.
- (만들다) 어제 불고기를 만들어서 제 동생하고 같이 먹었습니다.
- (찍다) 제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보내 드렸습니다.
- (일어나다)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운동하러 갔습니다.

6. (쓰다) 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써서 제 친구들에게 부쳤습니다.
7. (가다) 저는 보통 집에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.
8. (만나다) 저녁 먹고 친구를 만나서 영화 보러 갈 겁니다.

G 10.4 -겠 (conjecture)

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.

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A: 이번 봄방학에 유럽에 놀러 갈 거예요. | B: 그래요? 좋겠어요. |
| 2. A: 날씨가 흐리네요. | B: 정말 그래요. 오늘도 비가 오겠어요. |
| 3. A: 이번 학기에 수업을 여섯 개나 들어요. | B: 그럼, 힘들겠어요. |
| 4. A: 어제 친구들과 "해리 포터" 를 봤어요. | B: 그래요? 재미있었겠어요. |
| 5. A: 스티브는 오늘 세 시 비행기를 타고 가요. | B: 지금 세 시 반인데, 그럼, 벌써 떠났겠어요. |
| 6. A: 어제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다 샀어요. | B: 돈을 많이 썼겠어요. |
| 7. A: 여름 방학에 한국에 두 달 동안 있었어요. | B: 그럼, 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났겠어요. |

G 10.5 The sentence ending -네요

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.

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A: 오늘 참 춥네요. | B: 네, 정말 그럴네요. |
| 2. A: 이 꽃이 참 예쁘네요. | B: 영희 씨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. |
| 3. A: 영희 씨, 이 음식이 참 맛있네요. | B: 맛있지요? 제 룸메이트가 만들었어요. |
| 4. A: 이 옷 참 싸요. 10불밖에 안 냈어요. | B: 정말 싸네요. 저도 살래요. |
| 5. A: 스티브 씨, 동생이 많이 자랐네요. | B: 네, 벌써 중학생이에요. 참 빨리 자라네요. |
| 6. A: 민수 씨, 어머니하고 참 많이 닮았네요. | B: 네,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. |
| 7. A: 선생님께서 벌써 오셨네요. | B: 네, 빨리 들어가요. |

G 10.6 Irregular predicate in -ㅎ

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.



A) Irregular ≡ Predicates:

1. (빨갳다) 저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영미 씨예요.
2. (까맣다/파랗다) 제 눈은 까만데 스티브 눈은 파래요.
3. (어떨다) 수미 씨, 수미 씨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?
4. (이렇다) 한국하고 일본에는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.

B) Regular ≡ Predicates:

1. (싫다/좋다) 저는 이 옷은 싫어요. 저 옷이 좋아요.
2. (많다) 숙제가 많은 날은 잠을 많이 못 자요.

G 10.7 The noun-modifying form -(으)ㄴ: the past tense

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.

1. (보다) 어제 본 영화는 참 재미있었습니다.
2. (입다) 저기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제 동생입니다.
3. (쓰다) 김 선생님 옆에 안경을 쓴 사람이 스티브 씨입니다.
4. (이민가다) 어제 미국으로 이민간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
5. (사귀다) 한국에서 사귀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.
6. (보내다) 지난 주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가 아직 안 도착했습니다.
7. (가르치다) 저는 지난 학기에 김영미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과목을 들었습니다.



G 10.8 Honorific Expressions

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.

1. (운동하다) 우리 아버지께서는 매일 두 시간 운동하십니다.
2. (먹다) 할머니께서 방에서 진지를 잡수십니다.
3. (자다) 우리 할머니께서는 매일 여섯 시간밖에 안 주무시는데 참 건강하십니다.
4. (만들다) 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.
5. (살다) 박 선생님께서는 작년까지 서울에 사셨는데 지금은 미국에 사십니다.
6. (드리다) 할머니 생신날에 예쁜 스웨터를 선물로 드렸습니다.
7. (보다) 우리 한국어 선생님을 뵈러 선생님 연구실에 갔는데 안 계셔서 못 뵈었습니다.



